

#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성공적 시행을 바란다

글 | 최순자 \_ 인하대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sjchoe@inha.ac.kr

**현**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축이 되어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지난 2002년 12월에 만들어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04. 7. 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분석 및 환경변화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시행

제2차 기본 계획은 첫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둘째,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이다. 셋째,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의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범부처적 실천계획으로 향후 5년(2009~2013년) 간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범정부적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분야의 국가종합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여성과학기술인과 함께 하는 조화로운 과학기술중심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영역, 9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4대 영역은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촉진,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제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인프라구축

및 긍정적 사회문화 형성이었다. 제1차 기본 계획에 의거한 대표적 실천 프로그램으로는 차세대 우수여성과학기술인 양성 교육프로그램(WISE),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T) 설립, 차세대 고급여성공학자육성프로그램(WATCH21), 여학생공학선도대학(WIE)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의 공급측면을 분석해 보면 여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하여 미래 엘리트 여성인 '알파걸'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심화될수록 여성인력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고급 여성과학기술인력이 부족하고, 계열별 편차로 인한 편중(자연과학과 공학계열의 여학생 비중은 각각 53%, 18%)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인력의 수요측면에서는 지식창출역량을 갖춘 고급 R&D인력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공학 분야의 여성수요가 증대되어 여성 특성에 부합하는 공학인력의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에 활용 측면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및 노동시장의 재진입이 어려워 노동시장에서 높은 이탈률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때문에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었다.

결국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의 공급과 수요를 조화시킬 수 있는 세분화된 전략을 위하여 수요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육성된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이들의 활동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활용, 인프라구축으로 세분화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밑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실무기획추진단이 만들어졌다. 기획추진단은 1차 기본계획의 성과분석 및 평가와 2차 기본계획 중장기 목표 및 전략수립 등의 실무를 총괄하는 총괄기획팀, 여성 과기인 육성분야 정책목표 및 세부과제 도출 등을 맡은 세부정책육성팀, 그리고 여성 과기인 활용분야 정책목표 및 세부과제 도출 등의 책임을 맡은 세부정책활용팀 등 3개의 실무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제2차 기본 계획은 기획추진단이 만든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의견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거쳐 정부의 기본계획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기획추진단에 의해 만들어진 제2차 기본 계획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활용, 그리고 인프라 구축 등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추진전략으로 육성부문은 여학생의 이공계 분야 진출 촉진 및 고급여성과학기술인재의 전략적 양성, 활용측면은 여성과학기술인 친화적 일자리 창출 및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촉진 및 활용강화, 그리고 인프라 구축 측면은 여성과학기술인 연구·사회환경개선 및 지속적인 투자확대·추진체계 정비 등이다. 구체적 중점추진과제로는 여러 가지가 제안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선진국의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는 우리 나라보다 여성 교육의 역사가 길고 여성 인권 신장이 빨리 이루어졌으며, 사회 전반에 남녀 평등사상이 보편화된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선진국 벤치마킹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 펼쳐야

선진 주요국의 여성과학기술인력 관련 정책 방향은 주로 제도적·사회적 차별로 인한 여성과학기술 인적자원 낭비에 대하여 공감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다. 공통적으로 5가지 목표에 기반을 둔 지원정책이 실시되었는데, 우수 여학생들의 이공계 진학촉진, 고급여성과학기술인력양성,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및 고용촉진, 여성과학기술인의 사회활동 및 기회확대, 그리고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정책 등이 있다.

우수 여학생들의 이공계 진학촉진을 위한 대표적 정책으로, 영국에서는 여학생들에게 과학기술 체험활동 기회 제공 및 역할모델을 제시하는 WISE, ATHENA, UKRC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미국도 학교별 연구소탐방, 인턴십, 교수와의 멘토링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에 관심 있는 여학생의 진학을 촉진하는 WISE 프로그램 등

이 있다. WISE 프로그램은 우리 나라에서도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급여성과학기술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유럽이 강제인데, 과학연구분야의 여성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헬싱키 그룹(1999년)을 구성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여학생의 학문적 경험과 경력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과학기술문화개선을 위한 프로그램(UKRC)이 있다. 프랑스 정부는 기업에 3년 간 임금을 지급하고 학생은 기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산업체와 연계하여 청년층 고급인력의 고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CIFRE) 등이 있다.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유럽 16개국의 여학생 약 700명을 현장 경험 습득에 참여시켜 경쟁력을 강화하는 WiTEC 프로그램, 미국에서는 'Minority plan'이나,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쟁력을 높여 경력단절을 막고 여성과기인의 지속적 경제활동을 돕는 목적의 기관변혁보조금(5년), 개인연구보조금(3년), 리더십 향상 보조금(3년) 등을 지원하는 ADVANCE(2001)나 과학·공학분야 여성의 경력개발, 연구기획, 여성방문교수 등을 지원하는 POWER(1997) 프로그램 등이 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사회활동 및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이 앞서가는데,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1998년)' 및 '평등지위법(2000년)' 제정, 여성연구자 경력향상 보조금 등의 지원, 핀란드의 양성평등정책(2003년)을 통해 남성과 여성 중 참여비율이 낮은 쪽의 연구직, 전문직, 실무그룹 직책에 대해 40% 참여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등이 있다.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미 30년 전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법(1974년), 보육시설 확대계획(1976년),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실시하여 여성고용에 구조적 전환을 도모하였다. 최근 일본이나 중국 등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를 가진 아시아 국가에서도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개선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요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활용에 대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전환된다면 제2차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㉓



글쓴이는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후 미국 남가주대학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인천사랑여성모임 대표,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WISE 인천센터 센터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